

“욕먹고 버림받는 오월태선 안돼... 양보·소통으로 품위 높여야”

■ 정수만 전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

사망·부상·실종자, 정부 발표 154명보다 훨씬 많은 606명

공법단체 설립 못해 아쉬움... ‘5·18백서’ 완성에 매진할 것



“오월을 버리고 숨어버렸다” 등등 여러 말들이 많더라구요. 그냥 하던 일을 하고 있었을 뿐인데.....”

지난 7일 오후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 앞에 모습을 드러낸 정수만 전 회장은 약간 까칠해진 것 같았지만 여전히 밝고 활기찬 얼굴이었다.

지난 여름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가 최근에서야 이사회에서 이를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그것도 어렵듯이 들을 수 있었다는 정씨는 “물론이 있으니 사안을 좀더 깊게 보는 눈이 생겼다”며 “시각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박근혜 당선인이 이전에도 여러번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았고 반성과 참회의 의지가 없는 한 참배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하기에 배척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20년 넘게 오월관련 일을 해오면서 법리적으로는 안되는 일도 정치적으로 해결되는 경우를 많이 봤다”며 “5년이 다됐어도 오월단체의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있는 이명박 정부

를 경험해본 광주와 오월단체로서는 이전 새로운 전략적 사고가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씨는 오월단체 회장으로서 공법단체 설립 등 오월 관련 기관·단체의 통합을 마무리 못하고 나온데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모든 문제가 자기 자신의 아픔만 앞세우고 남의 아픔을 같이 생각하지 않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 같다”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하나로 힘을 합쳤던 마음으로 돌아가 양보하고 타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제는 소외된 계층과 세계 곳곳 민주화운동을 하다 고통을 겪는 이들을 위한 일을 할 때”라며 “국가유공자로서 품위를 높여 우리국민이나 세계인들에 욕먹고 버림받는 오월이 돼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간 접거하듯 활동이 뜸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했다.

‘5·18 산증인’이라는 그가 20년 넘게 갖고 있던 유족회장직을 내려놓은 것은 건강상의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 필생의 작업인 ‘5·18 백서’ 완성에 매진하기 위해서였다.

자료수집벽도 있었지만 오월정신이 시간이 흐를수록 배려지는 현실이 안타까웠던 그는 1994년부터 본격적으로 자료수집에 뛰어들었고 자료가 있는 곳은 어디든 찾아 나섰다. 이렇게 확보한 자료가 모두 30여만 쪽으로 300쪽 분량의 책 1000권은 족히 만들고도 남는 양이 됐다.

정씨는 10여년간 자료를 분석·정리하면서 아직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새로운 사실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희생자가 정부가 발표한 154명이 아니라 사망자만 166명, 부상 후 사망자는 375명, 실종자 65명 등 모두 606명에 이른다는 점이나 5·18 피해자 30여 명이 계엄당국에서 풀려났다가 다시 삼청교육대로 끌려간 사실도 확인했다.

당시 전남도청에서 마지막까지 항거한 유상원씨가 함께 찢려 숨졌고 귀가하던 여고생과 회사원 등 3명이 계엄군에게 성폭행당한 사실 등을 새로 밝혀냈다.

그는 5·18 1세대로서의 소명감으로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수록하는 데이터베이스(DB) 작업중에 있으며 올해 말 정도에 ‘5·18 백서’로 윤곽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씨는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세력들이 아직도 남아있어 그동안 모아온 자료들을 백서로 발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시간이 주어진 만큼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진실을 규명, 그 어느 누구도 5·18을 왜곡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정수만씨는 누구

20여년을 5·18 단체의 대표적인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을 지내며 ‘5·18 산증인’으로 불려왔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총탄에 둘째 동생(당시 30세)을 잃었다.

인쇄업을 하던 그는 이때부터 5·18 진상규명과 피해 보상, 책임자 처벌을 위해 30년을 바쳤으며 5·18 관련 단체들이 이합집산할 때 20년 넘게 유족회를 지키며 5·18특별법과 국가기념일 제정을 이끌어냈다.

정씨는 5·18 단체의 대표로 5·18의 명예를 드높이는데 힘쓰지만 죽은 자들을 위한 추모 못지 않게 이들의 고귀한 뜻을 밝히는 ‘기록자’로서의 의무를 늘 가슴속에 간직하고 살아왔다.

“진실 규명이든, 명예회복이든 말로만 하는 것은 한 몫 실패할 수 없게 됩니다. 기록만이 진실을 유지하고 밝혀줄 것이라고 봅니다. 그게 남은 자, 산 자들의 역사적 책임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라고 되새기는 것도 이 때문이다.

2006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 151명의 삶과 죽음을 기록한 ‘그 해 오월, 나는 살고 싶었다’(한얼미디어 펴냄)를 냈고 올해 ‘5·18 백서 발간’에 매진하는 것도 이같은 의무감에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계엄군 총탄에 둘째동생 잃은 후 20년 넘게 유족회 지켜

희생자 151명 기록한 ‘그 해 오월, 나는 살고 싶었다’ 발간



1995년 12월 27일 5·18 당시 집단발포 현장인 옛 전남 도청 앞에서 5·18 수사 특임검사 등에게 그때의 상황을 설명하고 하고 있는 정수만(왼쪽에서 세번째)씨.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주)다와옥션컨설팅부, 매수신청대리업체(법원인가)
임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다가구 주택

- ▷ 동구 계림동 4층상가주택 대지333㎡ 건평243㎡
감정가6억7천만 최저가3억7천만
- ▷ 서구 농성동 2층주거 3층다가구주택 대지299㎡
건평456㎡ 감정가14억4천 최저가3억1천만

단독주택

- ▷ 화순 남면 가암리 농가주택 대지866㎡ 건평158㎡
감정가7천만
- ▷ 서구 농성동 2층주거 2층단독주택 대지230㎡
건평267㎡ 감정가12억7천만 최저가1억5천만
- ▷ 서구 농성동 2층주택 대지146㎡ 건평136㎡
감정가1억1천만 최저가8천만

공장및창고

- ▷ 광산구 삼가동 공장·창고시설 토지3553㎡ 건물72㎡
감정가3억8천만 최저가2억6천만
- ▷ 북구 대촌동 첨단과학단지내 일반공업 토지4981㎡
건물3409㎡ 감정가39억8천 최저가25억5천만
- ▷ 영암군 삼호읍 대불국가산단내 단층공장
토지5300㎡ 건물2998㎡
감정가22억 최저가15억

토지매매

- ▷ 동구 내남동 주거지역 도심근교(전원주택부지) 주거환경
최상 대지750㎡
- ▷ 무안 해저면 계획관리지역 마을내 전방 좋은 전3643㎡
전3643㎡ 전3643㎡

☎ 문의 010-4911-4989
(팩스 062-226-3607)

금당 공인중개사

매매·교환·개발등의 물건을 접수합니다.

감정가 이하물건

- 금남로 대지 80 건물 300 감정 17억3천 10억3천
- 종장로 대지 27 건물 30 공사가 1억9천 매도 1억7천
- 요양병원적합 화순군 도곡온천지역 대지 1712건평
1681 대출10억 매도8억
- 광주역앞 4차선 도로 5층 건물 대지100 건평 370 대
출 5억3천 5층은 공실 전세 6천 월 450 매도 7억원
- 서구 매월동 공구상가 1층과 2층 23평 매입 1억천
건평 7천 전세 6백만원에 월 39 매도 3백만원
- 함평군 월야면 요양시설, 정신병원 적합 대지 3369
건평 3동 1116평 대출 3억 매도699천
- 양동 월파부근 신축건물 대지 132 건평 195 감정
은 11억이상 임대없음 대출 4억 5천 매도 7억2천

건물매도

- 전원주택 담양읍상 대지 275 주택 52평 1억4500
- 광주역앞 중흥동 대지 108 건평 397 원룸6 투룸17
대출3억 전세 8천에 월40만원선 7억
- 유동 상업지역 요양병원 적합 대지 928㎡(280평)
건평 7층 건물6487㎡(1952평) 매도34억
- 북구 우산동 대지 100평 건평 412평 대출 6억 보증
금 8천에 월세는 900만원선 매도 10억
- 화순군 도곡온천 가든 대지 433 건평 158평 5억3천
- 봉황면 철처리 땅 770평 주택 31평 전원생활 적합
아파트나 상가 주택과 교환가능 1억6천

나대지

- 장녀산 삼재면 산 44790평 화순군 동북면 전원생
활 등 적합 평단 6천원(2억6천구백만원)
- 화정동 화정역 인근 대토번 준주거 334평 오피스텔
형 생활주택적합 대출 10억 매도 17억 3천만원
- 함평 해보면 분장 4거리 100평 상가적합 1억 4천
- 비닐하우스 시설 나주시 봉황면 담 1417평 시설
600평 농림 대출 1억3천 매도 2억원전만
- 북동 상업지역 300평 원룸 오피스텔 적합 7억8천

222-4994, 010-2632-5659.
금남로5가 광주교동센터 옆

신한공인중개사

★신축원룸 매매전문★

- ★ **쌍촌동 운천역 2분 상무시장 뒤 룠15개 (주택, 옥탑)**
월수익 600~65천, 월25천 매가 895천, 월리베터 완비, 벽돌시공, 공기원로됨

★ 조대후론 1분 사래이지고 뒷 최고A급 자리

- ① 룠 16개 월수익 600 벽돌시공, 최고위치 매가 792천 (보전, 월2억)
- ② 룠 16개 월수익 600 벽돌시공, 최고위치 매가 792천 (보전, 월25천)
- ③ 룠 19개 월수익 700 벽돌시공, 최고위치 매가 895천 (보전, 월25천)

★ 전대후론 1분 룠 14개 월수익 500 (보전, 월15천) 매가 695천

★ 전대정문 1분 룠 21개(주택가) 월수익 720 매가 895천

★ 전대정문 1분 룠 21개(주택가) 월수익 750 매가 9억

★수원지구 상가 분양임대중(특별할인)★

1층~7층까지 670㎡ 분할가능, 즉시입주가능, 시비없음
(학원, 병원, 편의점, 독서실, 대형식당, 노래방, 스포츠센터 등 모든업종 가능)

- ① 3층 상가 매매 모아월가@ 앞 280㎡ 매가 395천 임대 보전 월200
- ② 4층 상가 매매 모아월가@ 앞 152㎡ 매가 2억 (배안대중 보전 월130만)
- ③ 1층 상가 롯데마트 앞 대대5차@ 후문 58㎡ 매가 395천
(임대가능 보전 월150만)
- ④ 2층 상가 롯데마트 앞 대대5차@ 후문 56㎡ 매가 95천
(임대가능 보익 월550만)
- ⑤ 3층 상가 롯데마트 앞 대대5차@ 후문 694㎡ 분할가 매가 10억
(임대가능 보익 월600만)
- ⑥ 4층 상가 롯데마트 앞 대대5차@ 후문 694㎡ 분할가 매가 10억
(임대가능 보익 월600만)
- ⑦ 7층 상가(최상층) 롯데마트 앞 대대5차@ 후문 600㎡ 분할가 매가 9억
(임대가능 보익 월600만)

★쌍촌동 상가분양 최초 역세권개발★

(1층~15층 상가 및 도시형 오피스텔) 분양·임대

★쌍촌동 토지매매 운천역 코너 상업지★

820㎡ 매가127억, 430㎡ 매가16억

문의전화 : 010-6670-9800

최기철 공인중개사 사무소

● 급하게 처분하실 부동산이 있으신가요?

조용히 소리소문 없이 물건 처분에 드립니다.

● 수익형 부동산을 찾으시나요?

월세 수익과 매도 차익까지 보장해 드립니다.

● 여유 자금이 있는데, 투자처를 찾고 계신가요?

전국 매물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땅이 있으십니까?

은행 대출에서 건축, 분양까지 상담해드립니다.

● 골프장 18홀, 골프장 9홀, (상담환영)

● 전국 랜드리프트 빌딩 다량 확보!

● 10억! 50억! 100억! 200억 물건 다량 보유 및 구함

● 고액 비밀 보장

● 모든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거나 개발하고 싶은분은

전화접수 후 사무실 내방하시면 귀한시간 내주시민들의

보답으로 더 많은 수익을 내실 수 있는 맞춤형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한번의 인연으로 평생 고객에게 신뢰를 남기는

공인중개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 매 물 ■

1. 서구 상무지구 메인도로 최고 상권 초대형빌딩,
대지 151평, 건평 939평,
최고의 자리에 위치한 건물로서 수익률 극대화할 수 있는 상가.
대지 1,058평, 건평 4,295평.
2. 서구 상무지구 내 훌륭한 사무나,
대지 524평
3. 서구 상무지구 중심상업에 있는 건물로서 월세 수익률이 높은 빌딩,
대지 151평, 건평 939평.
4. 서구 상무지구 최고의 자리에 위치한 증금 호텔,
대지 850평, 건평 2,620평.
5. 서구 상무지구 사후나 대지 1,932평 건평 2,710평,
대지 300평, 평당 1700만원.
6. 북구 초대형 사무나 대지 1,932평 건평 2,710평,
대지 300평, 평당 1700만원.
7. 서구 지방동 상가 밀집된 중심상업지역 최고 요지,
대지 300평, 평당 1700만원.
8. 송정리역 부근 상업지역 내 저렴한 땅 1,150평. (투자유망)

☎ 956-6660 / 010-2139-6255

상무랜드공인중개사

토 지(매매)

- 용 도 •
전원주택, 과수원
연수원, 절, 한옥마을 등
- 면 적 •
16,789평방미터(약5,078평)
- 위 치 •
백암산 남측(장성호위)
- 대표지번 •
장성군 북하면
쌍용리7-14번지(에17필지)
- 매각금액 •
5945천만 원

■ 설 명 ■

위 토지는 장성 백암산관광 아래로
5,078평 전부가 사용가능한 토지로서
최종으로 우백호의 지형을 완벽히 갖추고
있는 땅으로 본토지에서 남쪽으로 장성
호가 내려다보이며 본토지의 좌우로 계
곡이 흐르고 있습니다. 5, 6년 전 이미
토지의 토목작업이 다 되어 있었으나 지
금은 다소 잡초가 우거진 상태입니다.

1. 본토지는 한옥마을로 적합하며
2. 또한 전원 농장을 겸한 가족주택
3. 오일원이 전혀 없는 과수원
4. 조용한 절기도원
5. 회사의 연수원등으로 적합합니다.

진입로가 다소 협소하나 1톤트럭은
미음대로 기어올

본토지는 당 중개업소에서 전속

으로 중개하고 있습니다.

맞춤주문 받습니다.

원하시는 물건 찾아 드리며,

정리하실 물건

필요드리겠습니다.

★아무때나 전화 주십시오★

☎(FAX)383-5221
핸 010-3609-5221

대인동삼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

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

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

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

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않습니다.

시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

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FAX)223-1772 핸 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 옆 대인동 소방서건대)